

포항도 옛날엔 어항이었다

韓相復

〈國立水産振興院 海洋科長〉

세계적으로도 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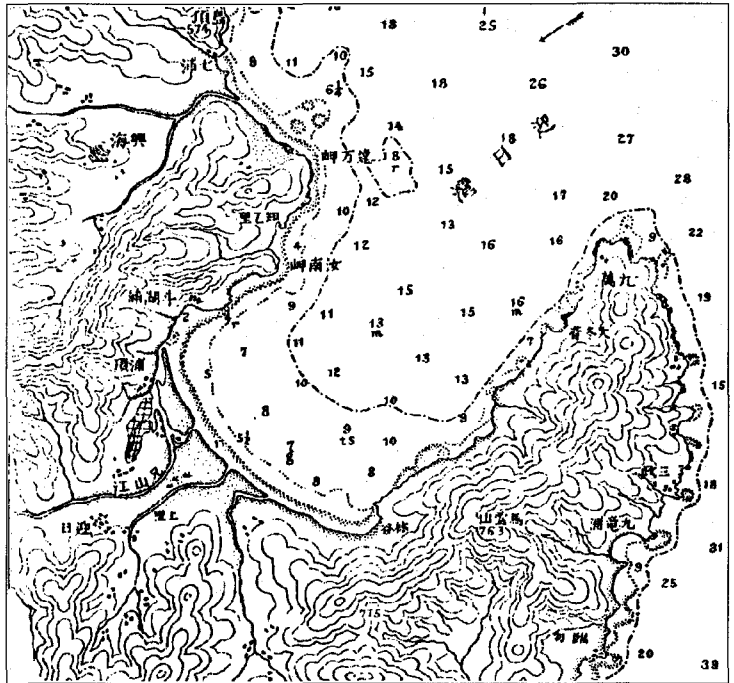
포항 하면 우선 「포항제철」이 생각 날 정도로 포항은 현재 제철산업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항의 옛날을 여기서 간단히 생각해 보자. 옛날 포항은 영일만의 북서쪽에 자리 잡은 한적한 곳이었다. 형산강 하류에 자리하고 있는 어촌이기도 했는데 주민들은 농사일이 주된 생업이었고 고기잡는 일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40년전 어선 7척

지금부터 약 90년전 포항에는 40여호의 가구가 있었고 그들은 주로 상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어선은 7척에 불과했다. 염전이 많아 매

년 2만석의 소금을 생산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온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어업이 발달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1906년 포항에는 어선을 정박시킬 인공몰이 하나도 없었다. 천연 그대로의 자연어항이었다. 어부들은 두



〈그림 1〉 자연항 그대로의 포항주변 (한국수산지 제2집)

호포(斗湖浦) 모래사장에 배를 끌어 올리곤 했다. 그러자니 배의 모양은 밑이 평평해야만 했다. 밑이 평평한 평저선은 파도에도 강해서 바다에 나가 고기잡는데 편했다. 속도가 느리고 배 몰기가 힘들긴 했어도 간단한 어로작업에는 별 문제가 안되었다. 자연항 상태의 포항을 나타내는 것이 <그림 1>에 나와 있고, 당시의 영일군 포항면 두호포에 있었던 재래어선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방교역이 활성화되자 포항의 항만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형산강에서 내려오는 표사(標砂)를 막기 위해 방사제(防砂堤) 건설이 우선 급해서 1914년부터 2년간 당시 돈으로 3,500여원의 공사비를 들여 45간의 방사제를 축조했다. 1간(間)은 1.82m이니 45간은 82m의 길이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항시설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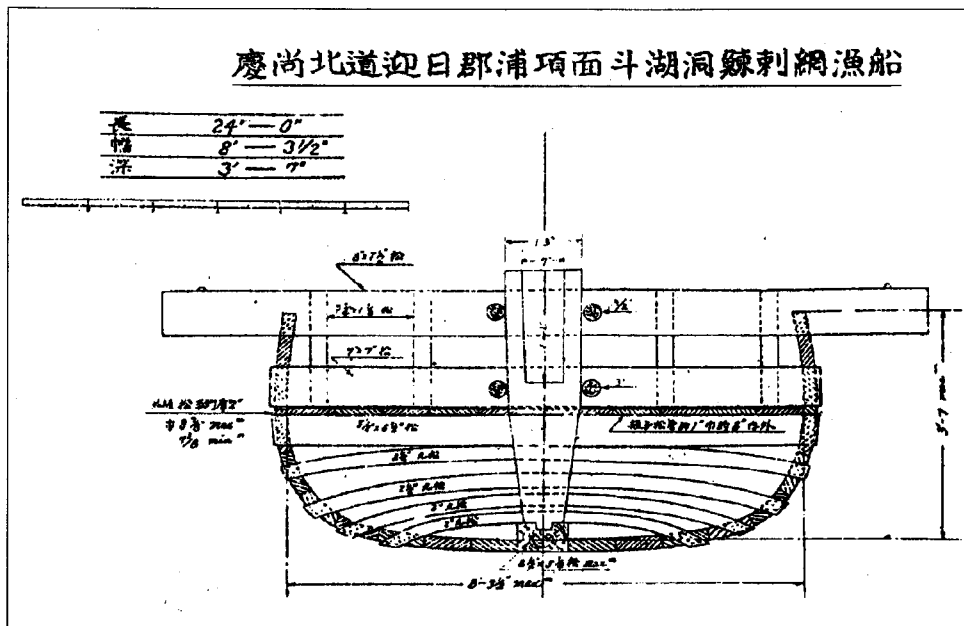
포항 어항의 공사는 1918년부터 3년간 총 공사비 13만 5

수십을 1m이상으로 유지시킨 것이 1차공사에 해당한다. 1차공사에서 국고지원은 6만7,500원 이었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기부금에 의했다.

2차 공사는 1921년부터 1923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총 공사비가 4만6,800원으로, 이중 반이 국고지원이었다. 2차 공사는 1차 공사의 연장이나 다름 없었다. 그래서 1923년에는 왼쪽 도수제의 길이가 381m에 이르렀고, 오른쪽 도수제의 길이는 361m가 되었

으며 수심을 1.5m로 유지시키게 되었다.

어항이 시설되자 어선이나 지방 상선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선박의 흘수도 깊어갔다. 예전엔 무동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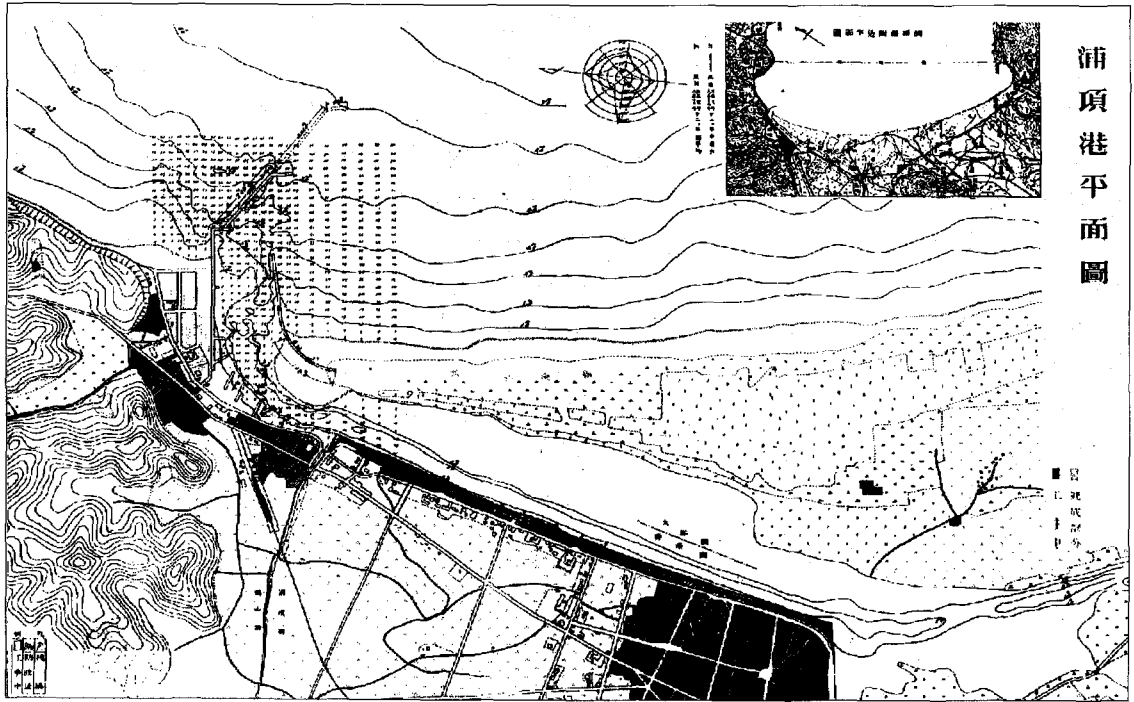


<그림 2> 포항의 재래어선(어선조사보고서 제1책)

1914년부터 본격 개발 포항에서의 어업활동과 지

천원을 들여 2개의 도수제(導水堤)를 만들고 5개의 제수(制水)공사를 하여 어항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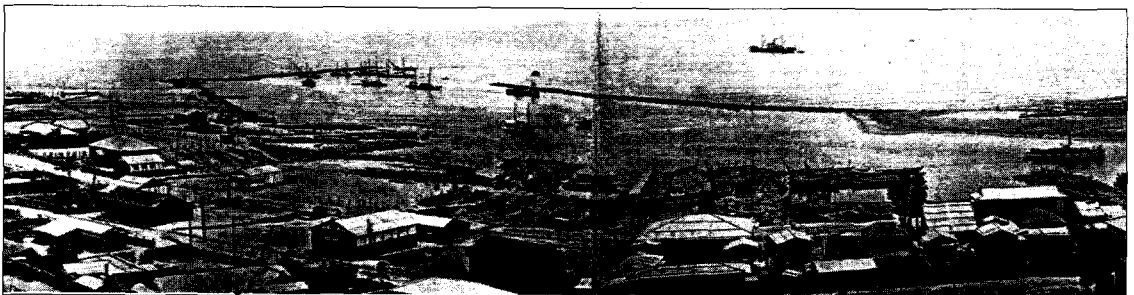
에 속도는 무시해도 되었는데, 산업이 발달하고 동력선이 나오면서 속도가 점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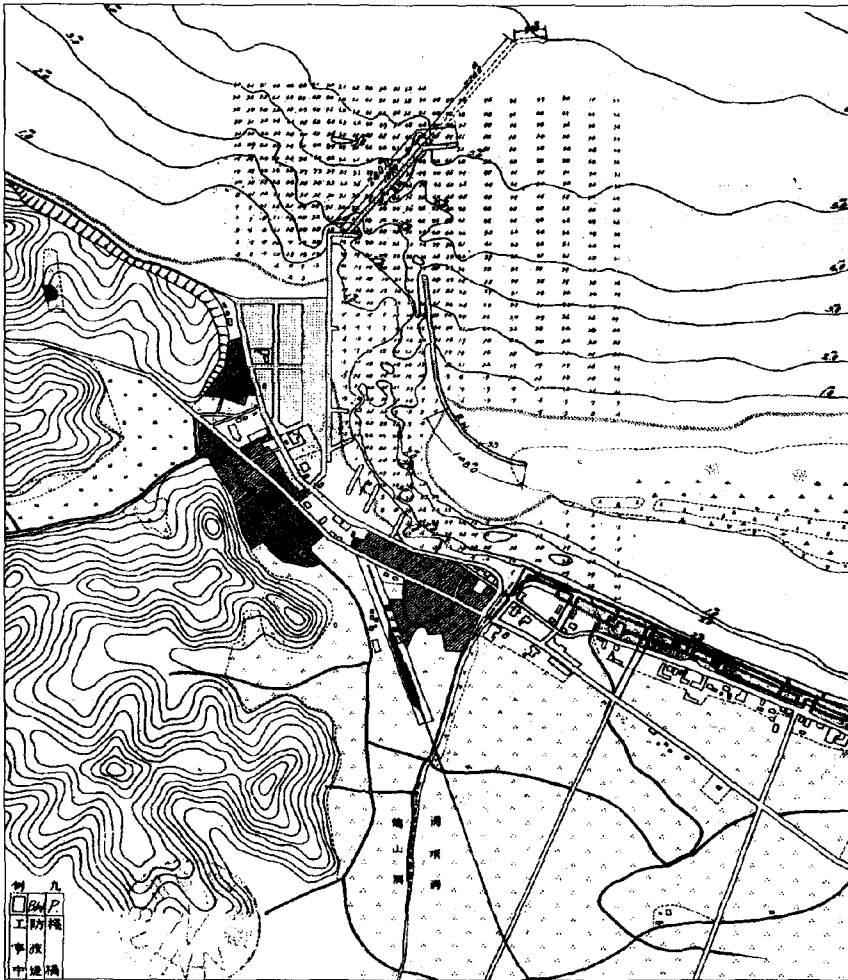
〈그림 3〉 포항항 평면도 (1930년)



〈그림 5〉 1930년의 포항항 전경



〈그림 6〉 포항항 전경중의 중요부분



〈그림 4〉 포항항 평면도의 중요부분

요하게 된 것이다. 포항이 어항 건설 후에 급속도로 발전하자 더 큰 항구시설이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포항제철 전용항으로

포항항은 1927년부터 4년간 총공사비 23만8,000을 들여 좌·우측의 도수제를 각기

240m와 148m로 연장하고, 항구를 준설하여 어선과 상선의 대형화에 알맞도록 확장했다. 1930년의 포항항 평면도가 〈그림 3〉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항만시설의 중요부분을 자세히 보이기 위해 〈그림 4〉를 별도로 실었다. 또 1930년의 포항항 전경이 〈그림 5〉에 있으며, 방파제 등 항구시

게 되었고, 지금은 어항으로 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포항제철의 전용항처럼 커졌다. 이제 어항도 아닌 포항항을 발전시키고 포항이라는 도시를 키운 이면에는 어항건설이 그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포항도 옛날엔 어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㉟

설을 뚜렷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 6〉을 실었다. 이들은 제3차 공사의 모습이다.

〈그림 3〉에서 〈그림 6〉은 1930년의 포항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자료로 1931년 발행된 「조선항만요람」속에 나오는 것들이다.

포항항은 제3차 공사로 어항겸 지방상항으로서 제구실을 했지만 1936년에 국고보조를 받아 추가공사가 진행되었고 또 1937년부터 1941년까지 지방토목공사로 국고보조를 받아 공사가 이루어졌다.

항구시설이 대형화되면서 어항으로서의 역할보다 상항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